

# 메세나와 희망의 인문학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so@naver.com

르네상스 시기의 최대 권력가이자 재력가였던 메디치 가문은 파란만장한 가족사와 교계, 정치계, 경제계를 아우르는 권력암투로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메세나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메디치 가문은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 다빈치 등 많은 화가, 건축가, 작가들을 발굴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그리스·로마 시대 희귀 고문헌을 수집해 당대 세계 최대 도서관과 미술관을 지어 피렌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것도,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 메세나, 권력형 메세나

메세나(Mecenas)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로마제국시대 아우구스투스(Augustus)황제 시절 예술가들을 지원한 부호이자 정치가인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을 일컫는 프랑수아이다. 그는 베르길리

우스, 호라티우스 같은 당대 대시인들을 후원한 문화예술의 보호자였다. 1966년 미국 체이스맨해튼 은행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의 일부를 문화예술에 할당하자고 건의하고 이듬해 '기업예술후원회(BCA)'가 발족되면서 '메세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제 메세나 운동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 의미상으로 따져 보자면, 메세나 활동은 문화 활동에 대한 순수한 지원일 뿐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는 배제한 운동이다. 즉, 문화 재단, 후원회, 협회를 통한 공연 예술, 문학, 문화 교육, 미술, 영상/뉴미디어, 공연예술(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국악) 및 더 나아가서는 사회단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하면서, 조건 없는 문화 지원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

오늘날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메세나의 근본적인 의의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업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층 높이는 자선 활동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메세나의 근본적인 의의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업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 예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브랜드와 기업 및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업이 문화 예술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참여를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 세제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고, 기부금 또는 성금(Corporate Giving)의 제공은 사회적 책임의식 이외에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됐건 국내 메세나 활동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인 활동이 강조되면서 점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신정아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메세나 활동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다. 사실 순수한 의도였는지,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정아 씨가 기획한 전시회를 후원한 기업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 씨에게 거액을 후원한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 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산고 동창이라는 점에서 변 실장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메세나 활동은 주로 기업 CEO의 감식

안이나 취향,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보다는 외부의 청탁·압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은 기업 본연의 이윤추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CEO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탓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권력형 메세나 아닌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실무 담당자들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원요청단체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거나 일관성 있고 실효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위한 매개체로 한국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있으나 김영삼 정부 시절 정부주도로 탄생하였고 기업들의 참여가 자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문화예술과 문화자본

근자에 미국의 교육학자 루비 페인 박사는 계급에 따라 생활의 모습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가령 식사초대를 다녀온 자녀에게 빈곤층은 '배불리 먹었니?' 라고 묻는다면, 중산층은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묻고, 부유층은 '차려진 음식이 보기 좋게 나왔니?' 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패션에 있어서도 계급은

문화자본은 경제자본처럼 직접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천수하지 않고 문화적 성향과 태도를 차별화하고 문화적 대상을 이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기계라고 할 수 있다.

드러난다. 빈곤층은 '나만의 스타일'을 강조하지만, 중산층은 '브랜드'를 따진다. 부유층에게는 '예술성'이 중요하다. 또 빈곤층은 미래의 결과보다는 현재를 중시하지만, 중산층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많고, 부유층은 전통·역사 등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빈곤층의 재산은 '사람'이지만, 중산층의 재산은 '물건'들이다. 부유층의 재산은 '골동품처럼 희소성을 갖는 것들'이다.

페인의 연구는 의욕도, 희망도, 전망도 없는 미국의 빈민층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교육학 측면의 연구로서, 부르디외가 《구별짓기》에서 설명한 문화자본이나 아비투스 이론의 반복이기도 하다. 부르디외는 교육은 계급에 따른 문화의 분배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계급간의 권력관계와 상징관계의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문화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자본의 개념을 제시했다. 문화자본은 개인이 속한 가정의 계급적 규율에 따라 각 개인이 전수받은 일련의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능력을 의미한다. 무의식적으로 습성을 획득하는데 있어 개인에게 통합되어 있는 것, 즉, 언어, 가치, 사고, 태도, 예술 등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인 무형의 형태를 지닌 것, 도구나 기계 등과 같은 객관적 형태의 것, 그리고 학력이나 자격 등과 같은 제도

화된 형태의 것이 이에 속한다.

부르디외가 문화자본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지배-권력 관계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경제자본만큼이나 문화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문화자본은 경제자본처럼 직접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천수하지 않고 문화적 성향과 태도를 차별화하고 문화적 대상을 이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기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소유 여부는 집단 간 문화적 취향의 차이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량과 연결될 수 있다.

결국 루스 페인의 대안은 빈민층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 교육으로 귀결된다. 과연 빈민층 아이들의 학습의욕과 삶의 의지를 고취 시키는데 문화예술이 효과적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희망의 인문학》의 저자인 얼 쇼리스가 제시한다.

언론인이며 사회비평가인 얼 쇼리스는 우연한 기회에 교도소를 방문해 한 여죄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할까요?”라는 쇼리스의 질문에 그 여인은 “시내 중심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신적 삶이 우리에게겐 없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연

주최와 공연, 박물관, 강연과 같은 '인문학'을 접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사고하는 법,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을 몰라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 인문학과 도서관

쇼리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995년 노숙자, 빈민, 죄수 등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 수준의 인문학을 가르치는 수업인 클레멘트 코스를 만들었다.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은 빈민들을 동원해 훈련시키는 대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밑천으로 자존감을 얻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한 사회의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공공근로와 같은 사회적 일자로나 빈민을 위한 소액대출 같은 제도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직접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빈민들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해줌으로써 직업 훈련의 효과를 준다. 다시 말하면, '하루 먹을 물고기'가 아닌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의식의 혁명이며, 시민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의 시작이다. 이틀테면, 시장의 논리와 부자들의 담론을 넘어서, 가장 낮은 곳

에서 시작하는 가장 부드러운 혁명인 것이다.

얼 쇼리스는 인문학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력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일상을 자율적이고 자신감 있게 새로 시작하도록 이끌어 준다고 말한다. 인문학을 통해 생활에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사람들과 자유롭게 관계 맺을 수 있고 이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권력(force)을 벗어나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정당한 힘(power)을 얻어 윤리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을 배우는 것, 인문학을 통해 성찰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빈민구제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들보다 더욱 중요하다.

최근에는 우리사회에서도 '희망의 인문학'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권력형 메세나 파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진정 공동체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우선 도서관부터 지을 일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도서관이 '기적'일 정도로 책 안 읽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거나 마땅한 공간이 없어 독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기업의 메세나활동, 혹은 희망의 인문학 운동이 절실하다면 먼저 벽촌의 도서관 짓기,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